

2022년 09월 04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90편 12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38(통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7장 1~10절 (구약p.767)

1.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2.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샅을 기다리나니
3.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걱정되었구나
4.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5.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6. 나의 날은 벼들의 복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7.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8.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9.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10.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 말씀선포 / 하나님께 호소함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호소하다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본문 1절에서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했는데, 사실 힘든 노동이란 말은 “차바”로서, 그 뜻은 군대, 군대 지휘관, 혹은 전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욥이 느끼는 이 고통은 마치 하루하루 치열한 전쟁을 치르듯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전쟁 같은 삶의 고됨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

러나 이러한 고난 앞에서도 그는 2절에서 “좋은 저녁 그들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샅을 기다리나니.” 라고 호소하며, 하나님께 인생의 수고를 한탄하며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돌아봐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욥의 호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전쟁 같은 고난 앞에서도 소망이 사라져 버린 지금 욥의 이 호소를 통하여 알게 되는 사실은 과연 무엇입니까?

1. 우리의 인생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 욥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노동이 필수 요소임을 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분명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낮에 이렇게 일터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밤은 유일한 안식의 시간이 되어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밤에 안식함으로써 체력을 회복하고, 또다시 노동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인생들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이러한 안식조차 자신에게는 주어지지 않음을 비관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좋은 저녁 그들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샅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걱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같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욥은 낮이나 밤이나 고통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고, 특히 5절에서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라고 호소하며, 지금 육신의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계속 이어진다고 탄식합니다. 왜 지금 욥은 이러한 탄식을 하나님께 호소합니까? 욥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렇게 안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의 삶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만이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은 그저 자신의 전쟁 같은 이 상황과 수고와 고난의 모든 것을 투정하듯 호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안식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호소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안식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고있는 우리들은 전후무후한 일들 앞에서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인생의 고된 짐이 있고, 수고의 짐이 있으며,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연약함과 질병의 문제가 있으며, 가정과 경제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전쟁같은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처와 아픔, 불안함과 괴로움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고 말씀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에게 참된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으로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분의 멍에를 뉘 때, 우리는 지금까지 결코 경험하지 못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의 안식을 기대하며 안식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더욱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어 참된 평안과 쉼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우리의 인생은 바람같이 덧없다는 것입니다.

- 욥은 계속 인생의 허무함을 토로합니다. 본문 7~10절입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에게 생명은 바람이나 구름과 같기에 자신은 스올을 향해 사라질 운명이라고

탄식합니다. 옴은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옴은 인생은 너무도 빠르게 흘러가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기에 하나님이 속히 자신을 도우셔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없애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지금 옴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시기가 너무 늦어져 자신의 덧없는 인생이 더더욱 짧아질 것을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옴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짧습니다. 마치 화살이 날아가듯이 인생의 시간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처럼 짧은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옴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찾아와 주시길 바랐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은 모든 인생에게 필요하며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짧은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짧은 인생 속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날 뿐 아니라 그와 동행하며 함께 해야 합니다. 그 뜻을 배우고 알며, 말씀에 따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 또한 유한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옴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어 죽음과 멸망이 아닌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행복과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은 전쟁 같은 삶 속에 고난의 연속일 뿐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삶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세상의 방법들을 버리고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와 동행함으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넉넉하게 맛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65(통484)장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 폐 회 / 주기도문